**눅1721 Note**

**◆ 하나님 왕국과 작은 죄**

**◇사두 썬다싱의 명상에서 ( #79, #190 )**

79. 하늘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며 이 지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다.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마치 작은 세균이 병을 일으켜 덩치큰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듯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화를 입고 있다.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죄 가운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때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고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편에 영혼의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경고이다. 구원의 증거는 과자를 먹으면 단 맛을 느끼듯 내적인 신비로운 평화를 지니며 산다는 것이다.

열대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알지 못하여 눈이나 얼음에 상하여 동상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듯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가 고통의 근원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190. 가장 단단한 나무를 파먹는 벌레나 바위에 구멍을 뚫는 바다벌레는 아주 연약한 작은 벌레이지만 딱딱한 나무나 바위를 파괴한다

우리가 주의를 하지 못하는 작은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죽게 한다

또 뱀이나 전갈과 같이 독을 가진 생물은 상대를 상처 낸 후 독을 주입함으로 죽게 하여 모두들 두려워 하지만 파리나 모기는 그다지 위험하다고 여기지 못하나 실은 병균을 이리 저리 옮겨 역병을 일으킨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난 악인보다 숨은 악인이 더 지독할 수 있다

**◇썬다 싱**

큰 죄만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죄의 기원이 되는 숨은 악념이 더욱 파괴력을 지닌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단 한가지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 Joseph Alleine**

죄중에 하나라도 보류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용납치 않으실 것이다.

그대의 죄들을 송두리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대신 죽어야 한다.

단 하나의 아주 작고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대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그 죄를 살려준 대가로

대신 죽어야 한다.

**◇챨스 스펄젼**

우리가 방자하게 또 고의적으로 한 가지 악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다. -

**◇ 지옥 간증:**

**후반부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던 분이 작은 죄에속아 지옥간 부분이 참두렵네요..**

저는 제 평생을 나미비아(서남 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나고 자랐읍니다.

그리고 2월 6일 2005년, 저는 제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맡겼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읍니다.

그중에는 2번의 지옥 방문이 있었읍니다.

주님은 제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지시하셨읍니다.

또한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이나 예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하셨읍니다.

이 책을 쓸 때쯤은 2006년도 말쯤입니다.

주 예수님은 저를 33번 방문하셨읍니다.

주님이 매번 방문하실때 마다,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구나, 시간이 없다!"

<중략>

주님은 한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를 가르키셨읍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였읍니다.

그녀는 2005년도가 시작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읍니다.

전 그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하셨읍니다.

그녀는 그녀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섬겼읍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왔읍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난하며 항상 궁핍한 사람이였읍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읍니다.

그녀는 주님의 충실한 종이였읍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에 전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읍니다

왜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기던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는지,

주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길,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속았다고.

그녀가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녀는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녀는 작은 죄는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꺼라고 생각했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 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읍니다.

"난 그녀에게 수도 없이 가서 그녀가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해주었단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작다고 하며 내 경고들을 자기자신이 그냥 죄책감으로 느끼는 감정 정도로 생각 하였다.

그녀가 그 죄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고가 주님이 주신게 아니고 자기자신의 소리라고 다시 한번 자기자신을 설득시켰지. 왜냐하면 그 죄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였는지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 보았읍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읍니다.

"그녀는 Oshakati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친구가 있었단다, 언제고 그녀가 아플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간호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약 조제실에 가서 약좀 챙겨 달라고 하였단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 주었으며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가지러 오도록 했지.

첫번째로 그녀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로 했지. 그리고 나의 진실을 왜면했지.

그녀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훔쳤지.

하지만 제일 나쁜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지옥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인도해 왔어도 상관없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지옥에 갈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만을 걱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너희의 영혼구원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되느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 우리는 돌아갔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제게 물어보길,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으며.. 은혜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해?"

"그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어떠한 기독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드릴 뿐 입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여기 성경 구절들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롬0612. 그러므로 너희가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청종하도록,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 안에서 다스리게 허용하지 말라,

히1026. 이는 만약 우리가 진리(진실)의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의로(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들에 대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히1027. 대신에 대적들을 삼켜버리는 심판과① 불타는 의분(義憤)을② 확실하고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 남아있음이라.

<추신>

배의 바닥에 구멍이 열개 뚫렸는데, 그 중에 아홉만을 막고, 하나를 그냥 놔두면?

배는 침몰하겠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때는, 우리의 육신이 모두 노후화 해서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

우리의 육신이 다 강건하여도, 그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